

HYUNDAI E&C TODAY

Vol.344
우리는
현대건설
이다

http://news.hdec.kr
2017 / 11 / 14 / Tuesday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 주소 서울시 중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 신고번호 중로 라00049

〈사보신문〉에서는 테마로 대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우리는 현대건설이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현대건설의 이름으로 완성해온 자랑스러운 역작을 통해 도전 DNA를 일깨우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Hyundai E&C lights up night of cities

Architecture brings life into a city and becomes its symbol. As landmarks of cities, buildings shine at night and fascinate the hearts of people. Hyundai E&C is one of the builders that has constructed landmark buildings and changed the image of cities around the world.

Starting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MBC Jeongdong Building (1969), Korea's primary builder set out to redesign the skyline of Seoul in the post-

war period. The N Seoul Tower (1971) and the curtain wall construction of the 63 Building (1985) also belong to a wide range of portfolios of the company.

Hyundai E&C built a lot of landmark buildings abroad such as the building of the Ministry of Interior of Saudi Arabia (1992) which looks like a blooming flower, Suntec City (1997) and Asia Square Tower 2 (2015) in Sin-

gapore, and Bitexco Financial Tower (2011) in Vietnam. The masterpieces of Hyundai E&C are well received by people in the countries by dominating the skylines of the international cities.

Armed with cutting-edge construction technology, Hyundai E&C is working on building masterpieces which will occupy significant places in the history of the world's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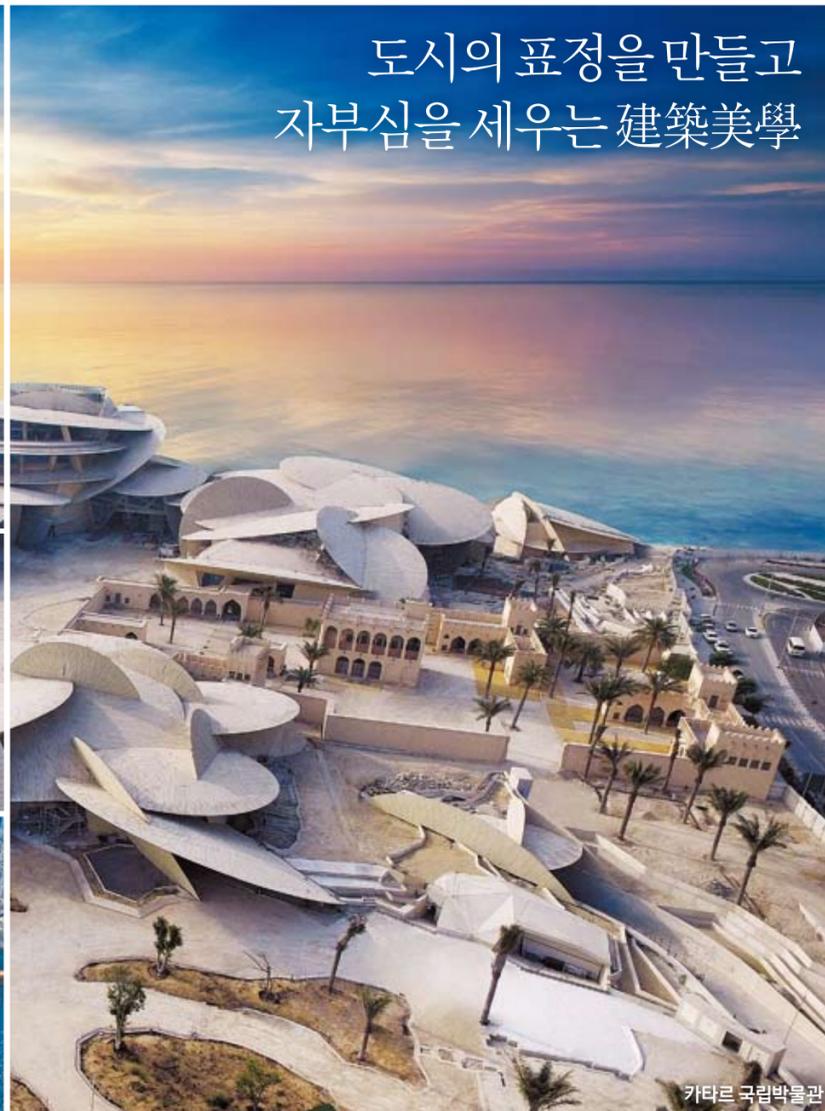
도시의 표정을 만들고
자부심을 세우는 建築美學



베트남 비텍스코 파이낸스타워 2011



UAE 두바이 아이



카타르 국립박물관



싱가포르 선택시티 1997



사우디아라비아 내무성 본청 1992



싱가포르 아시아스퀘어타워 II 2015



남산서울타워 1971

도시의 밤을 수놓다



아셈타워 2001

건축은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스스로 상징이 되기도 한다. 특히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은 어두운 밤에도 홀로 빛나며 많은 이를 매혹시킨다. 현대건설 역시 이런 건축물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바꿔왔다.

고층 건물이 드물던 시절 현대건설은 故 김수근 건축가의 예술혼이 담긴 MBC 정동사옥(1969) 건립을 시작으로 전후 서울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방송 스튜디오는 물론 극장, 호텔 등 복합시설이 들어선 이 빌딩으로 종합건축기술을 축적한 현대건설은 이후 남산서울타워(1971) 타워시공, 대한생명 사옥(일명 63빌딩, 1985) 커튼월 외벽공사 등을 담당하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쌓았다. 특히 서울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던 1980년대 이후에는 대규모 스포츠(잠실야구장, 1982)·전시(아셈타워, 2001)·문화(국립중앙박물관, 2005) 시설들을 두루 건립하며 문화와 경제의 도시로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현대건설의 랜드마크 시공은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피라미드를 뒤집어 세워놓은 듯한 만개한 꽃송이 모양의 사우디아라비아 내무성 본청(1992), 싱가포르의 초대형 복합단지인 선택시티(1997)와 아시아스퀘어타워II(2015), 베트남 호찌민에 우뚝 선 비텍스코 파이낸스타워(2011) 등은 지금도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조율하며 자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은 첨단 기술과 시공법으로 무장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세계 최고 높이로 건설 중인 두바이 아이를 비롯해 막바지 공정이 한창인 카타르 국립박물관 등은 세계 건축사를 다시 쓸 역자들이다.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현대건설의 기술력으로 한층 더 높아진다. 현재 착공을 준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인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현대건설의 70년 노하우가 응축된 또 하나의 작품으로 서울의 미래 모습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예정이다.



Hyundai E&C recognized as a leading eco-friendly company

Selected for Carbon Management Honors Club for four consecutive years

Our company has been chosen for Carbon Management Honors Club at the 2017 CDP Korea for four consecutive years, solidifying our position as a global environment-friendly company.

Our company has been selected for Carbon Management Honors Club for four years in a row and Carbon Management Sector Honors for six consecutive years at the 2017 CDP Korea held in the Westin Chosun Seoul on October 27. This year, only five companies including Hyundai E&C were included in the list of Honors Club, which takes up top two percent of the 250 Korean companies ranked

in terms of market capitalization.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is the global initiative which analyzes and evaluates environment-related management information of major listed global companies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water and bio diversity. The evaluation results are often used by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as an investment guideline. The CDP repor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world's most reliable business sustainability indexes along with 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irector of Quality Management Group Min Jun-gi (center) awarded at the 2017 CDP Korea.

Hyundai E&C has received CDP's highest grade Leadership A with even-ly high scores in all assessment categories including management strategy for

climate change,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es, management of greenhouse emissions and environment-related new businesses.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우뚝'

'2017 CDP Korea'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4년 연속 선정

우리 회사가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지속 가능성 평가제도인 '2017 CDP Korea'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글로벌 친환경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7 CDP Korea'에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Honors Club: 최우수 기업)'에 4년 연속,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Sector

Honors: 산업 부문별 우수기업)'에 6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는 우리 회사를 포함한 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는 평가 대상인 국내 시가총액 상위 250대 기업 중 2%에 해당하는 수치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된 경영 정보를 분석·평가하는 글로벌 프로

젝트로, 평가 결과는 전 세계 금융기관의 투자지침서로도 활용된다. 지속 가능성 평가지표인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와 함께 가장 신뢰성 높은 글로벌 지속 가능 평가지표로 꼽힌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회사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온실가스 감축 노력 ▶온실가스 관리 ▶신사업 추진 등 전 영역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상

위 등급인 리더십A(Leadership A)를 받았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이번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4년 연속 수상은 현대건설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효율 저에너지 멤브레인 하수처리시스템' 환경신기술 개발 완료

우리 회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 개발한 '고효율 저에너지 멤브레인*하수처리시스템'이 11월 2일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이 기술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분리막 장치로, 대표적인 수질 오염물질인 하수 내 질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정-제어 시스템이다. 또한 ▶소요 에너지 10% 이상 절감 ▶방류수의 총질소 농도 5mg/L 이하 처리 등에 효과적이다. 우리 회사는 국내 멤브레인을 적용해 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였을 뿐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확보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리 회사는 검증 후 연계 되는 입찰 자격 가점을 활용해 국내외 하수처리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연구개발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으



로 강화되는 수질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온 결과 선진 기업보다 우수한 성능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6개월 동안의 현장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환경신기술 인증 획득에도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멤브레인: 오염물질에서 깨끗한 물을 걸러내는 여과막

하반기 구매부문 H Leaders 간담회

우리 회사가 10월 31일, 11월 3일 양일간 '하반기 구매부문 H Leaders 간담회'를 진행했다. 총 2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주요 협력사의 애로사항 청취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올해는 협력사들과 나눔의 상생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CSR 활동으로 꾸며졌다.

10월 31일 '원자재분과-건축재분과' 28개사가 참석한 간담회는 서울 종로-중구직접사 봉사관에서 '사랑의 빵 만들기' CSR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어 사흘 후 플랜트재분과 22개사가 참여한 간담회는 남산 둘레길 및 한양도성길 환경정화 트레킹으로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CSR 활동 후 석식 장소로 이



동해 업계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매본부 관계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협력사와 끈끈한 파트너십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주요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신축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11월 6일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5820억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 회사는 시공을 맡고, 이진종합건설이 사업을 시행한다.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는 부산 서구권 내 최초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다. 부산 서구 암남동 123-15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9층, 총 3개 동, 전용면적 84~138㎡, 1368가구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바다와 바로 맞닿은 천혜의 입지에 245m 초고층 아파트로 설계되는 만큼 탁 트인 조망권을 자랑한다.



우리 회사는 내부 설계부터 단지 조경 등에 많은 공을 들일 계획이다. 각각의 평면에 맞는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등 입주자의 여가생활을 돕는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선보인다.

그림사 소식

현대자동차그룹, 외국인 유학생 초청 2017 글로벌 프렌드십 투어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주요 사업장 견학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글로벌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1월 8일 엠블호텔 고양에서 7개 대학, 90개국의 정부 초청 우수 외국인 유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2017 글로벌 프렌드십 투어(Global Friendship Tour)' 행사를 개최했다. '글로벌 프렌드십 투어'는 미래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산업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현장·부서 소식

싱가포르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 현장 준공

싱가포르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 현장이 11월 3일 싱가포르 BCA로부터 최종 TOP (Temporary Occupation Permit) Certificate를



받았다. 현장은 연면적 51만9628㎡, 사무동 2개 동(지하 4층~지상30층), 주거동 2개 동(지하 4층~지상 34층, 1042 세대)을 47개월간의 공사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1조4000억원 규모의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 공사는 단일 건축공사로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다. 잔잔한 파도를 연상시키는 건축물이 중앙 광장을 동계 돌러싼 형태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 관계자는 "유려한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며 "난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만큼 우리가 완성한 이 건물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당당히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PHOTO NEWS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민간부문 대상 현대해상 하이비전센터



우리 회사가 시공한 현대해상 하이비전센터가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민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우리 회사가 2016년 준공한 현대해상 하이비전센터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에 위치한 연면적 2만5377㎡,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 건축물이다. 특히 연수원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숲으로 둘러싸인 건축적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다는 평이다.

서산 태양광 발전소 수주

우리 회사가 10월 31일 1697억원 규모의 '서산 태양광 발전소'를 수주하며, 태양광 발전소 시장에 첫 도전장을 냈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일원에 면적 98만㎡, PV 65MW 규모로 공사 예정인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국내 최초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ESS(에너지저장시스템)를 연계해 낮에 생산한 전력을 밤

이나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에 유동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사는 2018년 1월에 착수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 부진을 돌파하기 위해 태양광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올 초부터 전력투구 해왔다"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lympic Aribau Trail shows Gangwon's beauty

Nov 08

A multi-course trail created to celebrate the upcoming winter Olympic games in Korea is now open to hikers of all skill levels. The Olympic Aribau Trail connects three different counties in Gangwon, where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s being held. The trail is about 131.7 kilometers (82 miles) in total, and starts at a market in Jeongseon County. It then takes hikers over to rivers, hills, and finally to the East Sea in Gangneung.

The trail is divided into nine different courses and connects the eastern and western regions of Korea's Baekdudaegan mountain range- just like the Olympics aims to bring together people from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The trail runs through many well-known travel destinations and places where locals gather. It not only takes hikers to scenic areas, but also to railbikes, through now-closed coal mines and into traditional-style outdoor markets where locals sell things foraged in the mountains. Cultural Minister Do Jonghwan said that the trail will be a precious travel destination during the Olympics and it will become the legacy of the global sports event after it is over. Out of them all, Course 3 is the toughest one to walk, as it takes hikers up Mt. Nochu, which has an altitude of 1,322 meters (4,337 feet). Find what suits your taste and walk the trail yourself to get both the Olympic and Korean spirit. By KOREA JOONGANG DAILY

Nine Courses

1 Route 2 Distance 3 Difficulty level 4 Duration



Course 1
Market visit to start a long journey
1 Jeongseon Arirang Market~Najeon Station 2 17.1 km 3 Medium 4 6h 30m to 7h



Course 2
Arirang spirit comes alive at crossroads
1 Najeon Station~Masanjae Outlook~Gujeoll Station 2 20.5km 3 Medium 4 7h



Course 3
Finding a scholar's spirit in the woods
1 Gujeoll Station~Mt. Nochu Peak~Baenadeuri Village 2 12.9km 3 High 4 7h



Course 4
Tracing the origins of the Han River
1 Baenadeuri Village~Doam Dam Pavilion~Anbandegi 2 14km 3 Medium 4 6h



Course 5
Farmer's paradise in the mountains
1 Anbandegi Pideokryeong~Mt Gorupogi~Daegwanryeong rest stop 2 12.1km 3 Medium 4 5h



Course 6
Long and winding road to Gangneung
1 Daegwanryeong rest stop~Jumak site~Bohyeon Temple bus stop 2 14.7km 3 Medium 4 6h



Course 7
The perfect spot for forest bathing
1 Bohyeon Temple bus stop~Suljan Rock~Myeongjugun Tomb 2 11.7km 3 Medium 4 5h



Course 8
Just passing through town
1 Myeongjugun Tomb~Solbau Outlook~Songyang Elementary School 2 11km 3 Medium to Low 4 5h



Course 9
Accomplishments fill the final stretch
1 Songyang Elementary School~Ojukheon~Gangmun Beach 2 17.7km 3 Medium 4 7h

10 minute Korean Lessons

Basic



I forgot the appointment
약속을 깜빡했어요

Situational context

Michael is working and Yeong-min calls him. He tells Michael that everybody is waiting for him at Su-mi's birthday party. Micheal wants to express that he is sorry about forgetting the appointment to his friends. At this point, he can say "약속을 깜빡했어요."

Today's dialogue

영민 마이클 씨, 지금 어디예요?
모두 마이클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Michael ssi, jigeum eodiyeoyo?
Modu Michael ssireul gidarigo isseoyo.
마이클 아! 미안해요. 약속을 깜빡했어요.
A! mianhaeyo. Yakssogeul kkamppakhaesseoyo.
Yeong-min Michael, Where are you?
Everybody is waiting for you.
Michael Oh! Sorry.
I forgot the appointment.

One more expression

You can use '깜빡하다' when you didn't bring something that you should have. For example, "지갑을 깜빡했어요." (I forgot to bring my wallet.)

Intermediate



How did this happen?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Situational context

Michael comes to the office and sees that Yeong-min is wearing a cast on his arm. Michael wants to ask what happened. So he can ask,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Today's dialogue

마이클 영민 씨,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Yeong-min ssi, eoijeodaga geureoke dwaesseoyo?.
영민 어제 테니스를 치다가 좀 다쳤어요.
Eoje Tennis-leul chidaga jom dachyeosseoyo.
Michael Yeong-min, how did this happen?
Yeong-min I hurt myself while playing tennis yesterday.

One more expression

'어쩌다가' is the condensed form of '어떻게 하다가' (how did something happen while doing something), this can also have a meaning of '가끔' (sometimes), like "어쩌다가 산책하러 밖에 나가곤 해요." (Sometimes I go out for a walk.)

Please scan the QR code for more Korean language learning resources.
Source: 세종 누리 학당(Nuri-King Sejong Institute) www.sejonghakdang.org



Trump is treated to menu symbolic of the alliance

Nov 08

The Blue House hosted a state dinner for the U.S. presidential couple on Nov 07, offering carefully assembled dishes symbolic of the Korea-U.S. alliance. President Moon Jae-in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attended the dinner with their wives for two hours following a summit. According to the Blue House, 122 people from the two countries, including top Seoul and Washington officials and leaders of Korea's mili-

tary, business, academic, cultural and sports communities were invited to the event.

The main dish was grilled hanwoo (Korean beef) ribs from Gochang, North Jeolla, marinated 360-year-old soy sauce, and rice topped with shrimp from Dokdo Island, with other side dishes. The Blue House said four different types of rice from around the country were used. Dessert was a triple-chocolate cake with raspberry and vanilla sauce, and iced Korean cinnamon

punch topped with persimmon. Hans Cake, a mid-size bakery made the cake. Ahead of the dinner, the first lady, Kim Jung-sook, received the U.S. first lady, Melania Trump, for teatime. The tea, specially blended to promote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as named "Serene Morning of Pyeongchang," and is a blend of hydrangea leaves from Pyeongchang's Mt. Balwang and herbs of the East and West.

By KOREA JOONGANG DAILY



Group News

Kia Motors Appoints Oleg Son as New Head of Kia Design China

Kia Motors has appointed prominent car designer Oleg Son, 56, as Head of Kia Design China leading the brand's design activities in China and strengthening its design capability in the rapidly expanding Chinese market. Son will be based in Shanghai as Executive Director and Head of Kia Design China. He reports directly to President and Chief Design Officer, Peter Schreyer, and Head of Kia Design Center, Seon Ho Youn, and i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Kia design team located in Yantai. He will work closely with the Hyundai-Kia R&D cen-



ter in China, to strengthen and expand its design capabilities. He will also be working closely with other chief designers including Gregory Guillaume in Europe, Tom Kearns in the US, and recently hired Kia Head of Styling, Pierre Leclercq.

i30 N TCR takes superb TCR Europe race win

A sensational Race 2 victory, from tenth on the grid, provided a fitting climax to another strong weekend of the Hyundai i30 N TCR. Driver Gabriele Tarquini also provided the first pole position for the project, proving the car's position at the front of the current TCR category at the TCR Europe Trophy at Adria International Raceway. Driver Gabriele Tarquini and the car, the first Hyundai Motorsport built chassis to be designed for circuit racing, were among the fastest combinations throughout the weekend. Making its debut on Yokohama



tyres the i30 N TCR narrowly set the second fastest time in the opening practice session, the Italian was then able to head the final running before qualifying.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해 서민 주거 환경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 분야 모범 답안이 가장 많다는 일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도시재생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다. 글=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4
 2017/11/14/Tuesday



도쿄국제포럼은 일본에서 가장 큰 국제컨벤션센터로 마루노우치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지어진 핵심 건물 중 하나다.

일본 버블경제의 구원투수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통해 국제 경쟁력 높여

도시재생은 최근 세계적 도시 개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저성장과 인구 정체의 시대가 오면서 외곽 개발, 양적 공급 위주의 도시 확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원도심 지역의 인구 감소, 전통시장 침체, 오래된 단독주택지 노후화 등으로 도시 쇠퇴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도시 개발이 절실했다.

해외에서는 도시 쇠퇴를 국가 차원의 문제로 보고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도시 정책을 양적 팽창에서 도시 내부의 경쟁력 제고로 전환한 것이다.

일본의 도시재생은 민간 주도로 경기 활성화를 이루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의 슬럼화에 대한 문제와 함께 단지재생이라는 개념이 확대됐다. 제반 비용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지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용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생이 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맞물려 단지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정부가 지자체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유도 ▶도시 경쟁력 제고 ▶경제 활성화 촉진 등이 주요 목적이다. 이에 따라 각종 보조 및 용자 지원, 도시계획심의의 간소화, 용적률 완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지원 기구로 ‘도시재생기구’(옛 도시정비공단)가 설립돼 지역주민과 민간사업자 간의 코디네이터 역할과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 후 10여년이 지난 최근에도 각 지역에서 다양한 콘셉트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가 가져온 파급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도시재생은 비틀대던 일본 경제를 일으킨 1등 공신... 낡은 인프라스트럭처를 민간의 힘으로 바꾸니 경제에 활력이 돌고, 내수가 살아났다

도쿄의 도심부는 쉽지만 변화는 중

일본 도쿄의 경제·금융 중심지인 마루노우치 지역은 도시재생특별구역으로 지정돼 하늘이 대형 크레인으로 뒤덮일 정도로 개발 붐이 일고 있다. 용적률, 고도 제한, 견해를 제한을 모두 없앴다. 마루노우치 지구 바로 뒤에는 일왕이 살고 있는 황거(皇居)가 있어 오래전부터 높

이 제한(31m)을 받았다.

90년대 말까지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900%까지만 허용됐다. 건물은 지은 지 100년 가까이 지나 낡을 대로 낡아 있었다. 건물의 인텔리전트화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곳이 도시재생특별조치법상의 도시재생간접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곳으로 변모했다. 전면 재개발을 하면서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보존되는 건물의 연면적은 용적률에 포함하지 않았다. 도시재생을 담당할 부동산 디벨로퍼인 미쓰비시지소는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광장 조성을 통해 지금의 관광 명소가 이끔었다. 최근 마루노우치 지구는 국제전략특별구역으로 지정돼 국제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이 지구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국토교통성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다.

일본 방위청이 있던 곳을 재개발한 ‘도쿄 미드타운’은 친환경·도시재생이라는 방향 설정과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가 개발을 지원한 사례다. 미쓰비시부동산은 2001년 9월 옛 방위청 용지 입찰에 5개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해 낙찰 받았다. 2004년 4월 재개발 공사에 착수해 3

1 신마루노우치 빌딩은 용적률이 1200~1300%였으나 도시재생특별지구, 특례용적률적용구역 등으로 지정되면서 용적률 1760%로 건축할 수 있게 됐다. 2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은 과거 미쓰비시 주식회사의 본사 건물에 있던 땅을 새로 복원해 설립한 미술관이다. (사진: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 홈페이지) 3 도라노몽힐스 지구는 ‘2020 도쿄 올림픽’에 맞춰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4 도쿄역은 특례용적률 적용제도에 의해 미 사용된 용적률을 다른 건물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훼손된 역사(驛舎)를 복원했다.

한국도 도시재생에 대한 시각 바꿔야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자는 정책이다. 있는 것을 잘 보존하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일본은 도시의 국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려고 한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상하이 푸둥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첨단 도시를 건설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90년대 초반부터 ‘Super Corridor’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다.

도시는 거주공간이면서 경제공간이다.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도시에 원래 거주했던 사람들의 거주 환경 개선뿐 아니라 도시에 새로이 와서 살 사람에 대한 거주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도시는 정태적 공간이 아니라 동태적 공간으로, 미래의 상황에 맞춰 바뀌어 가야 한다. 서울의 특정한 곳은 도쿄의 도라노몽 지구처럼 글로벌 거주 환경이 조성돼 업무 공간뿐 아니라 거주 환경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도록 개선돼야 도시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도시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있어 민간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과 창의력을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민간이 도시재생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나 민간 모두 ‘민간도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여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2008년부터 우리 회사가 해마다 개최하는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현대건설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굳히는 교류의 장이다. 세계 각국의 건설사 및 발주처와 기술력을 공유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11월 8일에 개최한 2017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에는 세계 각국에서 18명의 연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컨퍼런스를 마친 후 우리 회사의 각 사업본부와 만나 협력의지를 다졌다. 글=김보나 / 사진=이승기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4
2017/11/14/Tuesday



1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과 기술컨퍼런스에 참가한 국내외 관계자들이 포토월에서 포즈를 취했다. 2 청중들에게 환영사를 하는 정수현 사장. 3 글로벌 건설 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이 행사에 매년 해외 선진사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2017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 건설 기술 교류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다

디지털 기술 활용 건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지난 11월 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그랜드 볼룸에 해외 선진 건설사 관계자와 전문 엔지니어, 전문가 약 500명이 모였다. 국내 유일의 글로벌 건설 기술 학술발표회인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를 위해서다. 우리 회사는 2008년부터 기술대전과 더불어 기술컨퍼런스를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 단독 개최해 전문성을 높였다. 글로벌 건설 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최신 건설 기술 동향과 미래 건설 기술을 공유하는 이 행사에 매년 해외 선진사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는 특히 18명의 연사 중 13명이 해외 연사로 구성됐다.

최근 몇 년간 대두돼 왔고, 올해 가장 크게 주목받은 건설업의 이슈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번 기술컨퍼런스를 아우르는 전체 주제 또한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정했다. '디지털'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등록과 참석 확인 및 프로그램 등을 QR코드를 활용한 웹 기반으로 실시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도장을 찍어 참가를 확인하고 즉석 사진 인화 서비스도 제공했다. 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한 이벤트 덕분에 행사장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정수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정 사장은 "오늘 이 컨퍼런스가 건설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협력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현대건설과의 기술 협력을 강조했다. 바로 이어진 메인 세션은 프랑스 글로벌 종합건설 기업인 브이그(Bouygues)사의 아시아 CEO 피에르 무스티에와 영국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사인 ARL(Atlantis Resources Ltd.)의 CEO 팀 코넬리우스의 발표로 진행됐다. 전통적인 건설 분야에서 벗어나고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 브이그사의 지속 가능 경영 및 기술혁신 사례는 우리 회사를 비롯한 청

중의 관심을 끌었다. 아시아 CEO 피에르 무스티에는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고객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건축과 인프라 분야 등의 깊이 있는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가치사슬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RL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발표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 사업인 스코틀랜드의 메이겐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해외 관계자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기술 및 전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세미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추후에는 발표와 더불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사와 청중이 질문과 토론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로벌 네트워크 및 기술 협력의 초석을 다지다

메인 세션 이후에 진행된 기술 세션에서는 ▶스마트 건설 ▶에너지·환경 ▶인프라·건축 등 세 가지 테마로 16건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중 우리 회사는 ▶스마트 건설 현황 및 적용 사례 ▶헬리오스테이트(햇빛 반사장치) 기술 및 경제성 평가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부유식 해양 플랫폼 기술 개발 등에 대해 소개했다. 그 외에도 기술 세션은 싱가포르 국영기업인 주룽타운공사, 세계적 기술 기업인 3M, 프랑스의 3D 프린팅 전문 업체인 XtreeE, 노르웨이 과학기술대(NTNU)의 강연 등으로 채워졌다. 기술컨퍼런스는 단순한 연구개발 성과 발표의 자리가 아닌 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우리 회사와 기술컨퍼런스에 초대된 연사들은 대부분 현재 연구개발본부와 기술 기획 및 개발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행사 전후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협업을 논의했다. 그 예로 XtreeE는 11월 9일 본사에서 3D 프린팅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했고, 3M과 인도네시아의 PT.WIKAREKON, 노르웨이 과학기술대(NTNU)는 각각 건축·전력·인프라환경사업본부 및 연구개발본부와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리 회사와 탄탄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싱가포르 관련 기관 세 곳과 우리 회사 각 사업본부는 부유식 구조물 기술 및 물 환경 분야 기술 협력 등에 대해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우리 회사와 싱가포르 난양공대가 공동연구소를 설립해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주관의 5개 핵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018 기술컨퍼런스는 무대를 싱가포르로 옮긴다. 연구개발본부 R&D전략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해외 학생들에게도 기술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선진사와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술컨퍼런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우리 회사와 탄탄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싱가포르 관련 기관 세 곳과 우리 회사 각 사업본부는 부유식 구조물 기술 및 물 환경 분야 기술 협력 등에 대해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우리 회사와 싱가포르 난양공대가 공동연구소를 설립해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주관의 5개 핵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018 기술컨퍼런스는 무대를 싱가포르로 옮긴다. 연구개발본부 R&D전략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해외 학생들에게도 기술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선진사와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술컨퍼런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4 현대건설의 올해 연구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참가자들. 5 올해 기술컨퍼런스는 QR코드를 활용한 웹 페이지를 통해 참석을 확인하고 발표 자료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2017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 메인 세션

1 브이그의 디지털 전략과 개방형 혁신

- 디지털 전략
 - 건물 이용자 및 고객을 위한 서비스
 - 생산성 및 공사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
 - 업무 방식 변화
- 디지털 도전의 기회와 위험
 - 기회 고객 대상 IT 서비스 및 심도 있는 발당-인프라 서비스 제공
 - 위험 외부의 새로운 경쟁자 진입
- 브이그 3대 혁신 솔루션
 - City Box 도시 디지털 가로등
 - Wizom IoT 기반 주거용 스마트 기기
 - Alize 전기차 인프라 서비스
- 개방형 혁신
 - 연구실 공동연구, 개원연구 강조, 연구 주제 다양화, 글로벌 대학 연계
 -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기술·시장 지원, 베타테스트, 선행 제품 개발, CVC 투자
 - 산업 및 서비스 제품 및 서비스 공동 개발, 타 산업 및 서비스 등과 협력, 다양한 협력으로 가격 할인

Mini Interview Pierre Mustiere, CEO, BOUYGUES ASIA



Q 기술컨퍼런스에 참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미래 기술과 전략이라는 어려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것이 대단합니다. 또한 브이그사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Q 통신 및 미디어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건설업과 어떤 시너지를 이루고 있나요?
빅데이터 AI, 음성인식, 사물인터넷 등의 통신 및 미디어 분야는 도로, 건설, 토목, 부동산 등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 부문에 이용됩니다. 각 사업 분야 간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죠. 또한 통신-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브이그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실제로 적용합니다.

Q 현대건설과 어떤 협업을 기대하나요?
발표에서 언급했듯 브이그사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개방형 혁신에서 비롯한 정보 공유입니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해 있어서 협업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현대건설과 경쟁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정보와 혁신 기술을 공유할 수 있겠죠.

2 유럽 해양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협력

- 유럽 지역 에너지 분야 57가지 메가 트렌드
 - 화석연료 발전 감소
 -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향상
 - 분산 발전
 - IT와 에너지 분야 결합(Blockchain)
- 해양 에너지(조류)
 - 2060년 유럽 전기 생산의 10% 담당, 40만 개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가능
 - 조류 발전 공동화 발전단계 하락 추이
- MeyGen 1A 프로젝트
 - 세계 최초, 최대의 조류 발전 프로젝트 (금융조달액 5100만 파운드, 약 760억원)
 - 2017년 10월 현재 프로젝트 Phase 1A 완료, 전력생산량 3GWh 초과, 월간 생산량 세계 최고 기록 수립
- 조력 발전 프로젝트
 - 영국 Wyre Estuary 조력발전 프로젝트 (공사비 3억5000만 파운드, 약 5000억원)
 - 영국 조력발전 현황 (Tidal Barrage, Tidal Lagoon)
 - 부유식 해상 풍력 : Celtic Array 프로젝트

Mini Interview Tim Cornelius, CEO, Atlantis Resources Ltd.



Q 기술컨퍼런스에 참가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우선 규모도 크고, 수준 있는 주제에 대해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사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해 내용도 매우 풍부했습니다.

Q 아시아 및 한국의 해양 에너지사업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제까지 기술은 유럽 위주로 발달해 왔지만 지형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성장 가능성을 지닌 곳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 등 ARL이 가장 주력하는 시장이 모두 아시아에 있습니다.

Q 한국에만 아직 진출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목표와 제주에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아주 매력적인 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대건설과 같은 능력 있는 로컬 파트너와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서울 도심의 풍경을 확 바꿨다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했다.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은 현대건설 특유의 도정전신과 최첨단 공법으로, 까다로운 독일 설계사와 발주처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글=김승희 / 사진=이슬기·아모레퍼시픽 제공

Artistic design turns a business building into innovation



1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전경

A new building with glamorous exterior is standing near Sinyongsan Station in Seoul, creating an overwhelming view around the district. The geometric exterior made of fins in various sizes whose color seems to change from different angles create unique dynamism, which confers a distinguished presence on the structure. It is the new building for Amore Pacific built by Hyundai E&C. The aluminum curtain wall consists of 4.5- to 7-meter-long 21,500 fins weighing 3,300 tons in total, which is the country's largest amount fabricated and built in one year of construction period.

In the lobby, gray exposed concrete structures, a high floor height of 18 meters, and an atrium covered with grid glass boast the imposing interior and refined beauty. On the fifth floor is a garden decorated with maple trees. Moreover, 1,176 solar panels producing 363kW of electricity were installed on the roof, enabling the building to reduce electric bill.

David Chipperfield, a globally renowned English architect, was responsible for designing the building. Hyundai E&C started the construction in August 2014. The 535.5-billion won project designed to build 22 stories above ground and 7 basement levels was completed in 38 month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acing the construction site was to produce high-quality exposed concrete. To make the surface smooth, highly precise work and advanced quality control were required during mould making and concrete placement.

The construction site put a top priority on understanding the quality level of exposed concrete required by the Germany-based design company DCA and the clien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quirements, the construction site made continued efforts to keep up with them by providing compulsory education courses for all workers as well as employees of Hyundai E&C. The application of full-scale mockups to all areas where exposed concrete is used, such as columns, walls, ceilings, railings and stairs, increased the satisfaction of the client and the design company.

Another obstacle to meeting the tight schedule was to coordinate the solely design-centered approach with DCA. Throughout 38 months of the construction period, employees of Hyundai E&C visited DCA's office in Germany 28 times to present samples and mockups, make the design company understand reasons why the design is not constructible, and suggest solutions to the problem.

The relentless and devoted efforts of employees from Hyundai E&C and its subcontractors have turned the original design into reality. As a prominent landmark, the new Amore Pacific Building is expected to bolster the reputation of Korea's primary builder.

A total of 28 workshops were held in Germany and Korea, meeting the expectations of the design company and the client

디자인에 예술을 입힌 업무시설 혁신이 되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 맡아 용산구 한강로 신용산역 인근에 화려한 외관으로 시선을 압도하는 건축물이 우뚝 서 있다. 다양한 크기의 무정형 Fin(건물 전체를 둘러싼 알루미늄 루버)들로 이뤄진 기하학적인 외부 마감, 각도에 따라 컬러가 변하는 역동성이 주변 건물과 확연히 구분되는 존재감을 뽐낸다. 2층 높이의 필로티를 적용, 굵은 열주들이 정렬해 있어 공전을 거니는 듯한 탁 트인 개방감을 자랑하는 이 건축물은 우리 회사가 시공한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현장이다. 건물 외부 마감에 쓰인 알루미늄 커튼월은 길이 4.5~7m의 Fin 2만1500개로 둘러싸여 있으며, 총 중량이 3300t에 달해 1년의 공사 기간 동안 제작, 시공한 물량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로비에 들어서자 회색빛의 노출 콘크리트와 3층 높이(18m)에 달하는 높은 층고, 뿔뿔히 격자무늬 유리로 뒤덮인 아트리움이 중후한 멋과 세련미를 뽐낸다. 5층의 중정부에는 단풍나무 등이 어우러진 정원이 조성됐다. 363kW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1176장을 건물 지붕에 설치해 전기료 절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대규모 트윈 엘리베이터 16세트(총 36대)를 설치해 승객 운송을 최대화했다.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가인 독일 DCA社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맡았다. 2014년 8월 착공한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현장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59-5번지 일대에 총 공사비 5355억원, 지하 7층-지상 22층, 대지면적 4394평, 연면적 5만7201평 규모로 38개월만에 그 위용을 드러내며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노출 콘크리트, 디자인 위주 설계 등 어려움 극복에 고품질의 노출 콘크리트 구현은 현장의 가장 큰 난제였다. 노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면에 별도의 마감층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떼어낸 콘크리트 구조체를 마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매끄러운 표면 시공을 위해 거푸집 제작과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매우 정밀한 작업과 고도의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우선 설계사와 발주처가 원하는 노출 콘크리트의 품질 수준을 이해하는 게 최대 선형 과제였다. 정형화된 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 차이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과 콘셉트를 파악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콘셉트를 이해한 후에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 현장 직원들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관련 의무교육을 실시 시공 시 주의해야 할 점을 공유하며 공사를 진행해 나갔다. 기둥, 벽체, 천장, 콘크리트 난간, 계단 등 노출 콘크리트가 적용



4



5



6



7



2 중정부에서 올려다본 신사옥. 3 Fin 2만 1500개로 둘러싸인 건물 외관. 4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 5 5층 중정부에는 단풍나무 등의 정원이 조성됐다. 6 노출 콘크리트와 높은 층고가 돋보이는 1층 로비 전경. 7 기준층 내부 사무실 계단.

독일과 우리나라 오가며 총 28차례 워크숍 진행... 까다로운 설계사와 발주처 높은 기대치 만족시켜

되는 모든 부위별로 실물 크기의 목업(mock up) 공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디자인과 협의를 거쳐 최종 품질 수준과 공법을 확정 후 실제 시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결과, 발주처와 설계사는 그들이 원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시공했다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시공성이 고려되지 않은 디자인 위주의 설계에 대해 독일 설계사를 설득

하는 과정 또한 촉박한 공사 기간에 현장 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또 다른 난관이었다. 직원들은 38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총 28차례나 독일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샘플, 목업 등을 수차례 제작해야 했다. 더 이상 결정을 늦추면 공기를 맞출 수 없을 정도까지 설계사 측이 시공이 불가능한 이유를 이해시키고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했다. 현장은 9월 29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난 3일 최종 준공인가증을 교부받

고, 추가 인테리어 공사에 한창이다. 밤낮없이 일하며 고군분투한 현장 직원들과 협력사의 도전적이고 헌신적인 노력 덕에 불가능에 가까웠던 당초 설계안을 성공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었다.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이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 디자인 건축물이 돼 현대건설의 명성을 높일지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INTERVIEW

“기념비적인 건축물, 현장 전직원과 협력사가 함께 이룬 결과물이죠”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결국 아우라를 뽐내는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은 엄청난 난공사(難工事)를 통해 완성됐다. 숏한 역경을 극복하고 준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만나 공사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다.



안계현 차장, 허윤준 부대, 김경래 부대, 류병길 현장소장(왼쪽부터).

Q 건물 중간이 뿔뿔히 독특한 구조물이 인상깊은데요.

류병길 부장(이하 현장소장) 우리 현장은 건물 중간에 오픈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행잉플로어(Hanging floor: 메가 트러스에 매달리는 층)와 메가 트러스(Mega Truss: 행잉플로어를 매달고 있는 육상)에 있는 구조물) 등의 독특한 구조 시스템을 동원했습니다. 구조상 하부층의 하중을 최상부에 있는 메가 트러스가 매달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닥에 건물 기초를 두고 차곡 차곡 쌓는 일반적인 공사와 정반대 순서로 진행해야 했죠. 이를 위해 가설 트러스로 상부 구조를 지지하도록 해 행잉플로어 시공 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

Q 독일 설계사와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김경래 부장대우 저는 소량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전등이나 통신 카메라, 소방의 유도등처럼 마감 이후에 드러나는 자재가 많습니다. 독일 설계사 측에서 손으로 스케치해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며 시공의 어려움을 모르면서 그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고집했죠. 2개월에 한 번씩 독일, 우리나라를 오가며 워크숍을 진행하고 화상회의도 했는데요, 샘플이나 목업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건 수정해, 다음 워크숍 때 불게"라고 재작업을 요구했죠. 하다 못해 엘리베이터 앞에 들어가는 문구, 글자 폰트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하니, 결정은 물론 제작

Q 노출 콘크리트 시공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안계현 차장(이하 안차장) 커튼월 공사의 경우 원안 설계가 시공 품질을 내기 어렵고 공기도 장기화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현장 착수 이후 바로 VE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세세한 것 하나까지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가 이뤄지는 디자인을 고집했죠. 2개월에 한 번씩 독일, 우리나라를 오가며 워크숍을 진행하고 화상회의도 했는데요, 샘플이나 목업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건 수정해, 다음 워크숍 때 불게"라고 재작업을 요구했죠. 하다 못해 엘리베이터 앞에 들어가는 문구, 글자 폰트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하니, 결정은 물론 제작

Q 독일 설계사와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이 늦어져 막바지에는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계현 차장(이하 안차장) 커튼월 공사의 경우 원안 설계가 시공 품질을 내기 어렵고 공기도 장기화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현장 착수 이후 바로 VE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세세한 것 하나까지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가 이뤄지는 디자인을 고집했죠. 2개월에 한 번씩 독일, 우리나라를 오가며 워크숍을 진행하고 화상회의도 했는데요, 샘플이나 목업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건 수정해, 다음 워크숍 때 불게"라고 재작업을 요구했죠. 하다 못해 엘리베이터 앞에 들어가는 문구, 글자 폰트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하니, 결정은 물론 제작

Q 독일 설계사와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이 늦어져 막바지에는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계현 차장(이하 안차장) 커튼월 공사의 경우 원안 설계가 시공 품질을 내기 어렵고 공기도 장기화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현장 착수 이후 바로 VE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세세한 것 하나까지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가 이뤄지는 디자인을 고집했죠. 2개월에 한 번씩 독일, 우리나라를 오가며 워크숍을 진행하고 화상회의도 했는데요, 샘플이나 목업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건 수정해, 다음 워크숍 때 불게"라고 재작업을 요구했죠. 하다 못해 엘리베이터 앞에 들어가는 문구, 글자 폰트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하니, 결정은 물론 제작

Q 독일 설계사와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이 늦어져 막바지에는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계현 차장(이하 안차장) 커튼월 공사의 경우 원안 설계가 시공 품질을 내기 어렵고 공기도 장기화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현장 착수 이후 바로 VE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세세한 것 하나까지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가 이뤄지는 디자인을 고집했죠. 2개월에 한 번씩 독일, 우리나라를 오가며 워크숍을 진행하고 화상회의도 했는데요, 샘플이나 목업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건 수정해, 다음 워크숍 때 불게"라고 재작업을 요구했죠. 하다 못해 엘리베이터 앞에 들어가는 문구, 글자 폰트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하니, 결정은 물론 제작

Q 독일 설계사와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이 늦어져 막바지에는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계현 차장(이하 안차장) 커튼월 공사의 경우 원안 설계가 시공 품질을 내기 어렵고 공기도 장기화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현장 착수 이후 바로 VE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세세한 것 하나까지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가 이뤄지는 디자인을 고집했죠. 2개월에 한 번씩 독일, 우리나라를 오가며 워크숍을 진행하고 화상회의도 했는데요, 샘플이나 목업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건 수정해, 다음 워크숍 때 불게"라고 재작업을 요구했죠. 하다 못해 엘리베이터 앞에 들어가는 문구, 글자 폰트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하니, 결정은 물론 제작

Q 독일 설계사와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이 늦어져 막바지에는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계현 차장(이하 안차장) 커튼월 공사의 경우 원안 설계가 시공 품질을 내기 어렵고 공기도 장기화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현장 착수 이후 바로 VE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세세한 것 하나까지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가 이뤄지는 디자인을 고집했죠. 2개월에 한 번씩 독일, 우리나라를 오가며 워크숍을 진행하고 화상회의도 했는데요, 샘플이나 목업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건 수정해, 다음 워크숍 때 불게"라고 재작업을 요구했죠. 하다 못해 엘리베이터 앞에 들어가는 문구, 글자 폰트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하니, 결정은 물론 제작

지난달 22일, 우리 회사 축구클럽 현대FC가 '제7회 전국 건설인 축구대회' C리그(건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3년 이후 4년 만이다. 현대FC는 결승전에서 SK건설을 상대로 후반 종료 직전 '환상의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1-0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사보신문>은 이번 대회 승리의 주역들을 만났다. 일도 축구도 열정으로 임한다는 사우들의 4인4색 인터뷰. 글=박현희/사진=이슬기, 국토일보 제공

현대건설 축구클럽 '현대FC' 4인4색 인터뷰

“전국 건설인 축구대회 우승? 완벽한 팀워크 덕분이죠!”



왼쪽부터 장창은 부장(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단), 오일선 대리(기획실), 김재범 사원(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공사), 정진후 대리(외주실).



포지션
중앙수비수
특기
빠른 주력

랍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에요. 인도 참발사장교 현장에서 근무할 때 현장소장님의 배려로 현지인과 축구를 한 적이 있어요. 저만 한국인이었는데, 함께 공을 차면서 현지인과 소통했던 기억이 있어요.

축구를 좋아한다면 누구나 OK!

Q 사우들에게 현대FC를 소개한다면?
장 회사를 대표하는 클럽팀이 되기 위해 2011년부터 축구를 잘하는 멤버들을 수소문해 영입하고, 열심히 훈련했어요. 현재 우리 팀에는 프로축구 2~3부 리그 경력이 있는 장석근(소사-원시 복선전철 1공구 현장)·이건택(대곡~소사 복선전철 5공구 현장) 사원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선수이자 코치로 활동하며 팀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오 클럽팀인 만큼 회비도 없습디다. 훈련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 오후 3시 중앙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해요. 등록 팀원은 30명 정도 되나 평균적으로 15명 내외로 참가하죠. 평소에는 다른 팀을 섭외해 5~6쿼터(1쿼터 25분) 정도 연습 경기를 진행하고, 대회를 앞두고는 간단한 전술 훈련이나 자체 게임 등을 병행합니다. 나이 불문, 실력 불문, 성별 불문! 축구를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저에게 연락(☎ 3561)주세요(웃음)!

우승 비결? 철벽 수비!

Q 제7회 전국 건설인 축구대회 C리그 우승을 축하합니다!
김재범 사원(이하 김) 작년에는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1년을 버리며 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꼭 우승하고 싶었는데, 바랍이 이뤄졌네요(웃음).
장창은 부장(이하 장) 전국 건설인 축구대회는 C리그(건설 부문)와 E리그(엔지니어링 부문)로 나뉘어요. 올 C리그에는 총 12개 팀이 나와 예선을 치렀죠. 대우건설·SK건설 등을 이길 때마다 마치 수주전에서 우리 회사가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더 좋았습니다.
오일선 대리(이하 오) 열심히 그라운드를 뛰어준 팀원들에게 주장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무엇보다 우승을 통해 현대FC 팀원 모두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포지션
왼쪽수비수
특기
대인방어

수비수를 제치며 오일선 대리에게 볼을 넘겼어요. 상대 골키퍼가 골을 막으려고 하는 순간 오대리가 멋지게 골을 차 넣었죠. 영상 자료가 없어 아쉽네요. 가히 이번 대회 MVP다운 몸놀림이었거든요.
정진후 대리(이하 정) 축구 경기는 11명이 하지만 선수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후보 선수들, 코치 등 스무 명이 그 자리에 함께해 주었죠. 현대FC 전원이 한마음이었기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 대표’로 대회 출전... 애사심 up
실력 불문!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

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죠.
김 맞아요. 덕분에 사내에 알려져 (사보신문) 인터뷰도 하게 됐죠(웃음).
정 회사에서 일적으로 만나면 심리적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취미 생활로 만나니 적당이나 나이를 떠나 좀 더 인간적인 사이가 돼요. 다음 회식 때는 장창은 부장님께 “형”이라고 불러볼 계획입니다(웃음).

졌을 때 스스로 없이 물어볼 만한 사람들이 생긴 것도 좋은 점이에요.
장 축구를 하다 보면 땀을 정말 많이 흘려요. 땀을 쫓 빼고 나면 업무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것 같죠. ‘동네 축구’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예나 지 금이나 체중 변화가 거의 없어요. 별도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크게 배가 나오지 않고, 체력도 또래들보다 훨씬 좋죠.
오 대회에 나가면 ‘현대건설을 대표해 댈다’는 자긍심과 더불어 애사심이 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를 하면 ‘엔도르핀’이랄까, 기분 좋은 호르몬이 마구 샘솟아요. 공 하나로 다양한 사



포지션
중앙수비수
특기
슛, 킥

우승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 ‘철벽수비’가 우승 비결이에요. 4경기 동안(8강은 부전승) 한 점도 내주지 않았거든요. 수비 실책으로 골을 먹으면 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수비수들이 제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어요.
김 무실점도 중요하지만, 우승에 필요한 건 골이에요. 오일선 대리가 4경기에서 3골을 넣었기에 최종 승리할 수 있었죠. 오 대리는 이번 대회 MVP예요. 특히 SK건설과의 예선전에서 넣은 골은 진짜 멋졌어요.
장 맞아요. ‘동네 축구’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감각적인 골이었죠. 프리킥 상황에서 김재범 사원이 두 명의 상대 팀

사원부터 본부장까지, 축구로 소통

Q 이번 대회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더라고요.
오 전국 건설인 축구대회에는 40대 이상 선수가 2명 이상 반드시 출전해야 해요. 결승전에서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선수가 인프라환경사업본부 권오혁 전무님과 장창은 부장님뿐이어서 두 분이 고생을 많이 했죠. 특히 권 본부장님은 63세의 나이로 풀타임을 뛰셨어요.
장 본부장님이 쉬지 않고 경기를 뛰시니까 다른 직원들도 힘을 더 낼 수 있었어요. 현대FC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와 직급이 있어요. 최고령이신 권오혁 본부장님이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주시고, 임동진 노조 위원장님도 현대FC 소속



포지션
중앙공격수(주장)
특기
헤딩, 몸싸움



1 결승전에서 풀타임을 뚫 권오혁 본부장은 ‘감투상’을 받았다. 2 우승기와 함께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현대FC. 3 경기 전 서로를 격려하는 선수들 모습.



겨울에 누리는 호사 온천 도원경



스위스 엔겔베르그(Engelberg) 이글루스 스파.



스위스 로이커바드 테름 (Leukerbad Therme).



부산 아난티코브 내 힐튼 부산 맥퀸즈 온수 풀.

바쁜 일상에 피로가 조금씩 몰려올 때면, 차가운 공기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 때면, 수증기가 뿜어올리는 피어오는 온천수에 몸을 뉘어 보자. 바다와 맞닿은 곳, 뜨거운 열사의 사막 한가운데, 화산재가 쌓인 현무암 지대, 산악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곳, 고급 속소의 육식 등에서 온천 여행의 백미를 맛볼 수 있다. 글=이은아 / 사진 제공=에머스퍼시픽, SK핀크스, 요르단관광청, 아이슬란드관광청, 스위스정부관광청(www.MySwitzerland.co.kr)

고요한 바다 곁 온천 심포

부산 아난티코브 워터 하우스



해운대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 부산의 동쪽 바다 가장 해안선에는 고급 휴양 단지, 아난티코브가 서 있다. 힐튼 부산 호텔을 필두로 숙소, 상가, 온천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부산 하면 흔히 여름 바다를 떠올리지만 아난티코브는 따뜻한 겨울 바다를 온몸으로 즐기기에 좋은 장소다. 바로 온천장 '워터 하우스' 때문이다. 전체 규모 2000평에 실내 공간만 1400평에 달하는 워터하우스는 지하 600m에서 하루 1000t씩 샘솟아 오르는 천연 온천수가 가득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수질 검증을 받은 광천 온천수로 신경통, 동맥경화, 피부염, 관절염 등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워터하우스는 실내와 실외를 자유롭게 오가는 동선으로 설계됐다. 실내에는 다양한 바데풀과 웰풀, 아이들을 위한 얇은 풀 등이 있다. 수온은 20~40도여서 기호에 맞춰 원하는 풀을 선택하면 된다. 실외 노천탕은 바다와 맞닿은 듯한 전망이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워터하우스 최고의 자랑거리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근 채 시원한 바다를 한눈에 담은 경험은 심신에 쌓인 피로를 녹이기에 충분하다. 쌀쌀한 계절로 접어들어 요즘 아난티코브 워터 하우스에서 아름다운 부산 바다 풍경과 함께 따뜻한 물놀이를 즐겨 보는 건 어떨까. 워터하우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계절 연중 무휴로 운영하며, 종일권과 반일권이 각 8만원과 6만원이다. 11월부터는 주중 여성 고교 4인이 입장하면 1인이 무료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온천수는 아니지만 힐튼 부산 호텔 10층에 자리한 '맥퀸즈 풀' 또한 추천할 만하다.

주소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역안로 268-31
문의 051-604-7233, www.ananticove.com/kr/cove

국내 유일의 우윳빛 온천

제주도 핀크스 리조트 아라고나이트 온천 포도 호텔, 디아넥스 호텔, 핀크스 골프 클럽 등이 모여 있는 제주도 핀크스 리조트는 온천을 목적으로 떠나기에 손색이 없는 여행지다. 온천의 꽃이라 부를 만한 아라고나이트 온천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현종과 양귀비가 즐긴 시간 온천과 성분이 유사한 아라고나이트는 품질이 탁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라고나이트는 또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온천이다. 국내 온천



대부분이 저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토출 온도 42도의 온천은 그만큼 희소성을 갖는다. '잘게 나누어진 광물'이라는 뜻의 아라고나이트는 탄산칼슘이 주성분이다. 아주 오랜 기간 제주의 지하 화강암 위로 순수한 물이 내려가면서 각종 미네랄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라고나이트는 일반 지하수와 섞이지 않은 100% 순수 온천이다. 2000여m 아래에서 스테인리스 관으로 끌어올려 3~4일간의 숙성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은 모두 걸러지고, 투명명 맑은 물은 탄산천 특유의 우윳 빛깔로 변한다.

핀크스 리조트에서는 모두 동일한 온천수가 공급된다. 그러나 각 시설마다 특색은 있다. 포도 호텔은 전 객실에서 아라고나이트 온천이 쏟아진다. 객실은 한실과 양실 두 타입이 있다. 한실에는 히노키 욕조가 놓여 있고 양실에는 대리석 욕조가 비치돼 있다. 포도 호텔은 올해 초 리뉴얼 공사를 통해 기존 한실에 있던 '사와라 히노키'를 1200만원 상당의 최고급 '기소 히노키'로 교체했다.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톤치드 함유량이 일반 히노키의 10배나 되어 건강한 온천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비투숙객도 이용 가능한 디아넥스 호텔 온천 사우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운영하며 성인 1인당 2만5000원이다. 한편 핀크스 골프클럽에는 온천 노천탕이 있다. 회원제 사우나이지만 내장객에게도 열려 있다.

주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863
문의 064-792-5200, www.thepinx.co.kr

알프스 스파에서 이글루 스파까지

스위스 로이커바드 테름 & 알펜테름



스위스 리기 칼트바드

스위스에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온천 마을이 여럿 있다. 로이커바드가 대표적이다. 30여 개의 온천장에서 130여 가지 성분이 녹은 온천수가 매일 390만L씩 뿜어져 나온다. 로이커바드 테름(Leukerbad Therme)과 알펜테름(Alpen Therme)은 병풍처럼 둘러싸인 알프스의 장관을 감상하며 온천을 즐기기에 좋다.

먼저 로이커바드 테름은 28도에서 43도까지 다양한 온도의 온천수를 폭포 샤워, 마사지 제트, 웰풀, 천연 돌굴 같은 10여 개의 시설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 풀에는 아이를 위한 스위스 최초 X 튜브 슬라이드가 제곱데가족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다. 로이커바드 테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3시간 이용 티켓이 성인 25스위스프랑(약 2만8000원)이다. 로이커바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스파 센터가 테르말 호텔(Thermal Hotels)에서 운영하는 알펜테름이다.

36도에서 40도 사이의 온천수로 채워진 실내외 풀에 제트 마사지 탕, 버블 에어베드와 휴식 벤치 같은 다채로운 시설을 갖췄다. 스파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이용 티켓은 성인 25스위스프랑(약 2만8000원)이다. 여왕의 산이라 불리는 리기 산 중턱의 '미네랄바드&스파 리기 칼트바드(Mineralbad & Spa Rigi Kaltbad)'에서도 알프스를 바라보며 노천욕을 즐길 수 있다. 수온은 35도도 미치지 않은 편이지만 미네랄이 풍부해서 활력을 되찾는데 효험이 있다. 입장료는 37스위스프랑(약 4만1000원)이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루체른 근교에 자리한 이글루 마을 '엔겔베르그(Engelberg)'에서는 이색적인 이글루 스파가 여행객들을 기다린다. 얼어붙은 트윙플제 호수와 티틀리 산의 설경을 배경 삼아 자쿠지에 몸을 담그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풍뎉치즈에 빵 조각을 찌어 먹는 남만은 덤이다. 2인, 4인, 6인용의 다양한 형태의 이글루 숙소가 마련돼 있으며 스탠다드 이글루의 경우 1인당 159스위스프랑(약 18만원)부터다.

문의 www.leukerbad-therme.ch, www.thermalhotels.ch, www.mineralbad-rigikaltbad.ch, www.iglu-dorf.com

사막에서 솟는 온천폭포

요르단 마인 온천

뜨거운 중동 광야에서 60도도 끓여오르는 용출수에 몸을 적시는 경험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온천욕이 될 것이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70km, 사해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인 온천(Hammamat Ma'in)이 있다. 풀이 거의 없는 황량한 계곡 사이로 뜨거운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요르단의 명소다.

섭씨 50~60도의 온천수가 30m 높이의 절벽에서 낙하하는 마인 온천은 여느 다른 온천과 달리 물 안마를 받으므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우렁차게 떨어지는 폭포수의 충격이 처음에는 꽤 얼얼하지만 이내 경직된 근육이 풀리고 나른함이 물러든다. 흘러지는 물방울들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처럼 시원하다. 물에는 다량의 칼슘과 마그네슘, 브롬 등의 미네랄이 함유돼 있다. 2000년 전 로마제국 시대에 유대 땅을 지배한 헤롯 왕도 피부병 치료를 위해 이곳 마인 온천에서 목욕을 즐겼다고 전해진다.

남녀가 유별한 아랍권이다 보니 노천탕에는 성별 이용 제한이 존재한다. 남성 전용 탕이 있는가 하면 가족, 특히 여자와 함께 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여자와 아이만 입장하는 곳 등으로 구분된다. 폭포 뒤편에는 돌굴이 있다. 벽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나오고 천장에 수증기가 맺히는 천연 사우나다.

폭포수 건너편에는 마인 핫 스프링즈 리조트 앤 스파(Ma'in Hot Springs



Resort & Spa)가 자리한다. 계곡에서 떨어지는 폭포 온천수가 곧바로 고이는 노천탕은 물론 수영장, 사우나, 스파, 레스토랑과 바 등의 시설을 갖췄다. 마인 온천의 폭포 2개는 오지 리조트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다. 단 안전을 이유로 폭포에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눈으로만 감상해야 한다. 리조트 밖에 있는 다른 폭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입장료는 10디나르, 약 1만6000원이다.

주소 P.O.Box 801 Madaba 11117 Ma'in, Jordan
문의 +962 53245500, www.mainhotsprings.com

겨울왕국의 푸른 낙원

아이슬란드 블루 라군



아이슬란드 블루 라군(Blue Lagoon).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 곳곳에는 크고 작은 온천이 있다. 그중에서 으뜸은 세계적인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아이슬란드 필수 여행 코스로 꼽히는 블루 라군이다. 이곳이 유명세를 타는 이유는 검은색 현무암 지대와 어우러진 파란 물 색깔의 영향이 크다. 청색 물감에 우유를 탄 듯한 희뿌연 푸른빛은 거무스름한 주변 풍경과 대조를 이루며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게다가 뾰얀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대한 호수 같은 온천은 보는 것만으로도 당당 몸을 담그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미네랄을 듬뿍 머금은 온천수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 내외다. 위치에 따라 조금 더 뜨거운 부분이 있고 미지근한 부분이 있으니 자신에게 알맞은 구역을 찾아서 즐기면 된다. 가만히 물속에 머물러 있으면 온천수가 기본 좋게 몸에 감긴다. 미끌미끌한 느낌이 그리 나쁘지 않다. 수심 역시 깊지 않다.

물속에서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다면 블루 라군 한가운데 있는 머드 바를 이용해 보자. 용암석과 온천수가 만나서 만든 하얗고 부드러운 규도는 피부 미용에 그만이다. 얼굴에 하얀 진흙을 바르고 동동 떠다니다 보면 손에 잔을 든 사람을 보게 된다. 온천 한가운데에 있는 노천 바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또 끈뜨끈한 물속에서 마시는 아이슬란드 맥주(Gull)와 칼데일 등의 음료는 블루 라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보통 한번 들어가면 서너 시간은 너끈히 즐기고 나오는데, 온천의 효능 때문인지 끝나고 샤워할 즈음이면 개운함과 피부가 좋아진 기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블루 라군 이용료는 6100크로나, 약 6만6000원에서 시작한다. 온천욕과 머드팩만 가능한 기본형부터 타월, 가운, 음료, 식사 등이 추가된 총 4종의 입장권이 구비돼 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전 예약은 필수다.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대형 버스를 이용한 블루 라군 투어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주소 Nordurjósavægur 9, 240 Grindavík, Iceland
문의 +354 4208800, www.bluelagoon.com



아이슬란드 블루 라군(Blue Lagoon).



핀크스GC 클럽하우스 내 아라고나이트 노천 온천



위로가 되는 한 그릇 SOUP SEASON

AVOCADO SOUP 아보카도 수프

불포화지방산과 미네랄, 비타민이 고루 들어 있는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은 편이라 '숲속의 버터'라는 애칭도 갖고 있다. 보통은 샐러드에 넣거나 크래커 위에 얹어 먹는다. 아보카도 수프는 은은한 아보카도 향이 풍기는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재료 아보카도 원하는 양만큼, 대파 흰 부분 조금, 레몬·오렌지 즙 1작은술씩, 채소 맛국물 2컵, 우유 300mL, 소금·후춧가루·사워크림 적당량씩
만들기 팬에 버터를 녹이고 양파를 볶다가 아보카도, 레몬·오렌지 즙, 대파 흰 부분, 채소 맛국물을 넣어 한 번 끓여낸다. 그런 다음 블렌더에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걸쭉하게 농도를 맞춘다. 둥근하게 끓여낸 뒤 사워크림을 곁들여 낸다. 아보카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이 밝은 녹색에서 진한 보랏빛 혹은 검은빛으로 변한다. 요리하기 좋은 아보카도는 보랏빛 혹은 검은 빛이 돌고, 눌렀을 때 딱딱하기보다 살짝 말랑한 것이 좋다.



TOMATO CHILI SOUP 토마토 칠리 수프

멕시코와 카리브해 요리에서 자주 쓰이는 칠리는 타바스코 소스의 원료이기도 하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발한 작용이 있다. 여기에 토마토를 넣어 수프를 끓이고 빵을 곁들이면 으슬으슬한 날 먹기 좋은 한 끼 식사가 된다.

재료 토마토 원하는 양만큼, 양파 1/4개, 마늘 1쪽, 채소 맛국물 1컵, 칠리 파우더·커민 파우더·소금·후춧가루·에멘탈 치즈·바질 잎·올리브오일 적당량씩
만들기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양파, 마늘, 칠리 파우더, 커민 파우더를 넣고 천천히 볶아 향이 배게 한다. 여기에 토마토와 채소 맛국물을 넣고 푹 끓인 뒤 블렌더에 곱게 갈고, 에멘탈 치즈와 바질 잎 등을 올려 마무리한다. 생토마토로 수프를 끓일 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긴 뒤 이용하거나 다 끓인 수프를 체에 한 번 걸러내면 껍질이 씹히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SWEET PUMPKIN SOUP & SWEET POTATO SOUP 단호박 수프 & 고구마 수프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특히 생각나는 별미, 고구마와 단호박 모두 재료 자체의 단맛이 특징이다. 수프로 만들면 아이들도 즐겨 먹는 간식이 된다. 수프의 부드러움과 대비되는 식감의 구운 호박씨, 바삭한 고구마 칩을 곁들이면 독특한 느낌으로 완성된다.



재료 단호박 원하는 양만큼, 당근 1/2개, 양파 1/4개, 채소 맛국물 3컵, 생크림 300mL, 베이컨·올리브오일·버터·소금·구운 호박씨 적당량씩
만들기 단호박은 잘라 씨를 제거한 후 껍질째 찌거나 익혀 준비한다. 당근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 끓는 물에 삶는다. 팬에 버터를 녹이고 올리브오일을 두른 다음 양파와 베이컨을 볶다가 익힌 단호박과 당근을 넣는다. 채소 맛국물을 부어 끓인 다음 블렌더에 곱게 갈고, 우유로 원하는 농도를 맞추고 소금으로 간한 뒤 구운 호박씨를 올려 낸다. 단호박 수프에 당근을 넣으면 더욱 달콤해진다.



재료 고구마 원하는 양만큼, 양파 1/2개, 채소 맛국물 3컵, 우유 300mL, 카망베르 치즈·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소금 적당량씩
만들기 수프에 넣을 고구마는 깨끗이 씻어 삶거나 포일로 감싸 180도 오븐에 30분 정도 익힌다.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채 썬 양파를 볶다가 삶은 고구마와 채소 맛국물을 넣고 끓인다. 끓고 나면 블렌더에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가며 농도를 맞춘다.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한다. 고구마 칩, 카망베르 치즈 등을 올려 마무리한다. 카망베르 치즈가 녹으면 고소함이 배가된다.

Tip! 채소 맛국물의 황금 비율

수프를 쉽게 만들기 위해 채소 맛국물을 미리 만들어두면 좋다. 채소 맛국물은 물 3L, 양파 1개, 대파(흰 부분) 1대, 셀러리 1줄기, 당근·레몬 1/2개씩, 마늘 2쪽, 월계수 잎 1장, 파슬리·타임 적당량을 한데 넣고 푹 끓여낸 뒤 체에 걸러 식힌다. 혹은 양파, 당근, 파, 마늘 등 평소 요리에 쓰다 남은 채소들을 모았다가 한데 넣고 끓여내도 좋다.